
테 마 진 단

◆ 〓단체보험시장 현황과 활성화 방안

김진익 선임연구원

1. 국내 단체보험시장의 현황

단체보험시장은 외환위기 전후 30%대¹⁾를 점유하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11%대까지 떨어졌음.

□ 단체보험은 하나의 계약으로 단체를 이루는 다수의 구성원에게 보장혜택을 주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크게 일반단체보험과 퇴직보험으로 나뉠 수 있음.

○ 일반단체보험은 단체정기보험과 재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과 생사혼합보험 형태의 저축성 보험 등이 해당되며 퇴직보험은 사적연금제인 기업연금의 전신으로 운영되는 보험으로 종업원의 퇴직소득을 보장하고 있음.

□ 외환위기 이전 보험산업의 성장을 이끌기도 했던 단체보험²⁾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최근 관련시장동향을 분석하고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현재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대부분의 종목에서 포화현상이 나타나고 생사혼합, 단체보험 등의 종목에서는 축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등 성장성이 크게 약화되고 있어 시장개척을 통한 재도약이 필요한 시기임.

○ 이에 따라 기업의 종업원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퇴직연금제의 도입을 앞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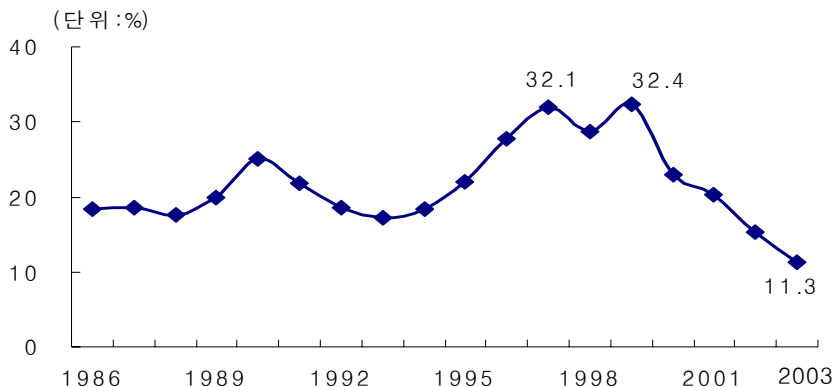
1) 수입보험료기준

2) 여기서 단체보험은 일반계정의 일반단체보험과 퇴직보험을 포함하며, 손해보험의 퇴직보험은 포함시키지 않음.

있는 시점에서 신성장의 기회로서 단체보험을 재조명하고 발전과제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 1960년대 생명보험시장은 단체보험이 법적(국민저축조합법, 1962년), 정책적 요인(임직원 중심 영업)으로 급속히 성장하다, 1970년대 이후에는 개인보험이 성장을 주도함.
- 1977년 퇴직금의 사외적립과 보험료의 손비인정을 골자로 하는 종업원 퇴직적립보험의 도입으로 단체보험시장이 확대되어 퇴직보험의 비중이 1980년에는 20% 내외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전후에는 30%내외까지 증가함.
- 그러나 2000년대 들어, 2000년 10월 종업원 퇴직적립보험이 판매중지되고 퇴직보험이 은행 및 투자신탁회사(2000.3)에도 신탁형태로 확대되어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제와 연봉제의 확산과 유사보험의 확대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FY2003 11.3%까지 비중이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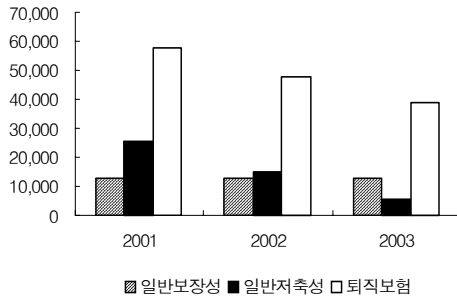
<그림 1> 단체보험의 보험료비중 추이



- 시중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경제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저축성 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가 지속적 축소되고 있음.
- 2004년 하반기 금리가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어 저금리에 따른 자산운용 수익률의 하락과 이에 따른 저축성 보험의 역마진 구조 악화가 우려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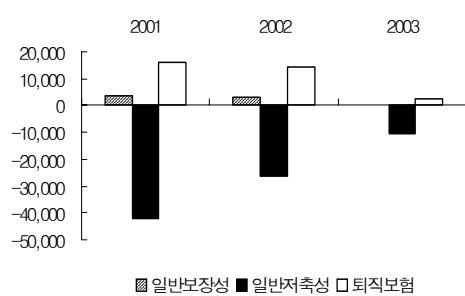
<그림 2> 단체보험 수입보험료추이

(단위 : 억원)



<그림 3> 단체보험 수지차추이

(단위 : 억원)



- 2004년 2/4분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8.3% 성장하였으나, 장기간의 감소세를 고려하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음.

2. 단체보험시장 비교 : 미국, 일본

미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단체연금과 일반단체보험을 발전시켜 왔으며, 기업복지차원의 보상수단으로서 근로자의 후생에 기여를 해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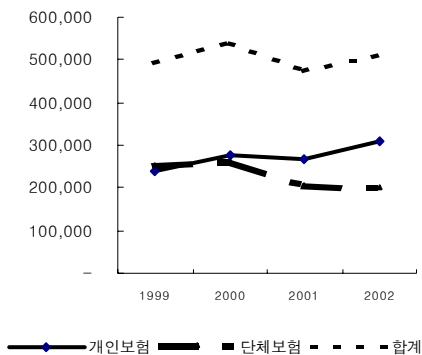
가. 미국

-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공건강보험체계가 없는 미국의 단체보험시장은 기업대상의 복지후생형 상품인 단체정기보험과 종업원대상으로 기초사회복지제도를 보완하는 연금 및 건강보험을 판매하는 형태로 발전해왔음.
- 미국의 단체보험은 전반적으로 사회보장체제를 보완하는 단체정기보험위주로 시작하여 기업연금과 건강보험이 추가되면서 활성화되어 왔음.
 - 2002년 현재 미국보험시장의 규모는 510조 7,200억 달러이며 그중 개인보험이 61.0%, 그리고 단체보험이 39.0%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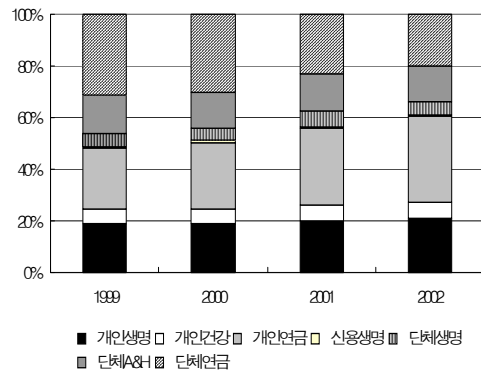
- 미국 단체보험의 상품구성은 단체연금이 19.7%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단체A&H가 14.0%, 단체생명이 5.3% 차지해 연금과 건강보험상품의 비중이 큼.
- 반면, 개인보험상품은 개인연금이 33.4%, 개인생명 21.2%, 개인건강 5.9%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들이 개인보다는 단체A&H에 의존하는 비중이 큼을 의미함.

<그림 4> 미국 수입보험료추이

(단위 : 십억달러)



<그림 5> 미국 보험종목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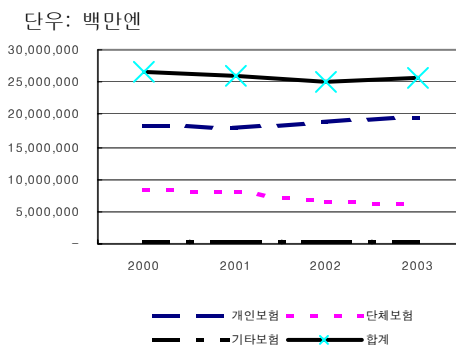
- 미국은 단체보험을 통해 종업원에게 다양한 급부를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 의료비상승에 따른 단체보험료 증가가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1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적어도 1개 이상의 단체보험을 제공, 대부분은 7가지 이상의 보험급부를 제공하며 중소기업조차도 4가지 이상의 보험급부를 기업복지의 일환으로 가입하고 있음.
- 2000년 이후 의료비, 생명, 치과, 재해사망과 고도장해, 장기장해, 그리고 단기장해 등 제공급부의 구성비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해왔는데, 최근 안과관련 급부가 추가되는 추세임.

3) A&H : Accident & Heal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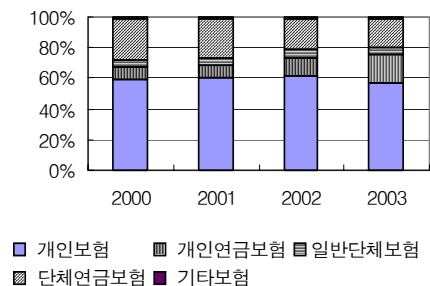
나. 일본

- 일본의 단체보험은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기업연금보험이 도입되고 이후 후생연금기금보험이 추가되면서 발달하기 시작, 이후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근로자 니즈를 반영하면서 단체건강보험 등이 활성화됨.
- 인구의 노령화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공적 연금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사적연금 및 사적의료보험에 대한 수요가 가속화되었음.
 - 2003년 일본의 보험시장규모는 25조 6,732억엔으로 전년대비 1.9% 성장했으며, 이중 개인보험은 4.1% 성장한 반면 단체보험은 4.5% 감소했음.
- 일본은 2003년 현재 전체 수입보험료 중 단체연금보험이 18.8%, 일반단체보험이 5.0%로 전체단체보험 중 연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최근 일반단체보험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 일반단체보험은 일부 종목의 급성장세에 힘입어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신계약의 경우 전년에 비해 단체정기(231.2%), 종합복지 단체정기(91.3%), 단체신용(20.6%), 소비자신용단체(13.8%) 등의 종목에서 큰 폭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음.

<그림 6> 일본 수입보험료추이



<그림 7> 일본 보험종목구성



- 일반단체보험이 전체 단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5.9% → 2001년 17.0% → 2002년 20.4% → 2003년 21.0%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어, 기업복지의 보장성화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
- o 단체연금보험은 최근 도입된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적격퇴직연금 및 후생연금의 감소로 수입보험료에서의 비중도 2003년에는 18.8%로 감소하였음.
-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적격퇴직연금 및 후생연금기금의 자산은 각각 8조 6,159억엔, 6조 7,895억엔으로 모두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년도부터 판매하고 있는 확정급부형 기업연금 자산은 1조 777억 엔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3. 국내 단체보험시장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단체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보완이라는 역할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단체보험 수요를 자극하고 충족시킬 다양한 상품의 부족과 언더라이팅기능 등이 낙후됨.

- 선진국의 단체보험시장이 사회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기능해온 반면, 우리나라의 단체보험시장은 초장기를 제외하곤 개인보험시장의 부수적인 시장으로서 적절한 기업복지의 수단으로 발전해 오지 못했음.
- o 단체보험시장의 활성화는 수요 측면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정책적, 기업 문화적 인식차이에 의한 제도와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는 보험회사들의 단체보험시장에 대한 관점에 의해 달라지는 마케팅, 상품, 언더라이팅 등의 차이에 의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음.
- o 수요측면
 - 우리나라의 단체보험은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소진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퇴직보험에 편중된 구조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내에서 사적보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기업경기에 따라 수요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움.

○ 공급측면

- **판매관행** : 그동안 일반단체와 퇴직보험 등은 기업의 근로자측면의 니즈에 부응한 판매가 아닌 기업의 금융조달과 관리의 초점에 맞추어 상품개발과 그에 대한 판매관행이 이루어져 근로자의 사회복지 안정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음.
- **상품종류** : 개인보험이 종신보험을 넘어 CI보험 등 건강관련 보장성 상품으로 중심이 이동하는 데 반해, 단체보험상품은 종류가 많지 않아 일반 근로자들의 생존보장 니즈를 충분히 소화하는 데 한계를 가짐.
 - 또한 소수의 실손보장 건강보험이 개발 되었으나, 선택의 범위가 넓지 않고 대개 산업재해관련 특약으로 보장되는 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기업연금상품이라 할 수 있는 퇴직보험도 관련제도 미비로 기업연금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음.
- **언더라이팅(계약심사)** : 단체보험종목의 위험관리는 언더라이팅 기능부터 시작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단체보험 언더라이팅은 단체보험의 단체성을 반영하기보다는 구성원의 인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계약심사가 주류를 이룸.
 - 그 결과 단체보험 판매 경험에 비해 경험율의 축적 부재와 이의 활용 부족 문제가 발생함.

4. 대응방안

일반단체보험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보험의 추세에 버금가는 상품다양성 구비와 계약심사기법의 선진화가 필요하며,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앞서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적 인프라를 확보, 신뢰성 제고가 필요함.

- 단체보험시장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시장으로 특히 사업비가 저렴하다는 것과 단체성에 의한 역선택의 방지는 개인보험시장의 경쟁이 극심한 상황에서 매력적인 장점임.

-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저축성 위주의 단체보험시장운영으로 보장성 단체보험시장이 등한시되어 왔으며, 기업들의 관점도 퇴직보험을 포함한 저축성에 맞추어져 왔음.
- 최근에는 다중의 보장급부를 조합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식의 기업복지제도가 정부기관 등으로 확산되고 기업들도 종업원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일반단체시장의 전망을 밝게 함.
- 또한 전통적으로 커다란 비중을 차지했던 퇴직보험시장을 대체하여 본격적인 기업연금인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2005년 12월로 정해짐에 따라 시장선점의 노력이 중요한 시기임.

가. 일반단체보험 활성화

□ 단체보험의 판매특성이 개인보험과 마찬가지로 크게 보장성과 저축성보험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바, 그에 대한 활성화방안도 구분되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상품의 다양화

- 기본적인 사망보장을 제공하는 상품뿐만 아니라, 임원대상의 CI보험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계층별 상품개발 및 판매가 부진한 생존위험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단체건강보험관련 상품(실손의료보장)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각기업체에서 상호회의 부조금 형태로 제공되는 건강보험수요를 단체보험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개발되고 있는 소득보상보험(DI)보험을 선택적 기업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단체보험에 적합한 기초자료의 확보를 통한 충분한 통계분석이 필요하며, 차차 계층별 다양화가 필요할 것임.

○ 언더라이팅 기능의 강화

-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은 상품의 기초율과 대상이 다른 만큼 위험률의 양상이 다르므로 상품은 다양화하되 상품구조는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1년 만기 단위의 재계약을 통해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그 동안의 단체보험관리를 통한 경험률을 적극 반영한 단체별 위험을 평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단체보험 언더라이터의 육성도 필요함.

나. 단체연금보험 활성화 방안

□ 오랜 기간의 진통을 겪은 끝에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는 것으로 정해졌는데, 단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퇴직연금의 경우 은행등 타금융권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사전 준비가 요구됨.

○ 언더라이팅 리스크관리 시스템화

- 보험회사가 진출하는 기업별로 언더라이팅 시스템을 구현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일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에 대비해서는 ① 연금제도 설계중심의 서비스 개발 ② 연금부채 중심의 리스크관리체계 구축관련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함.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대비해서는 ① 자산관리업무 중심보다 사무관리업무 중심의 서비스개발 ② 연금운용의 성과 측정에 관련된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함.

○ 연금 ALM시스템의 구축

- 금리위험 등 연금기금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리스크관리시스템의 도입·개발 등이 절실히 요구됨.
- 연금 ALM체계 즉 시뮬레이션 연금 ALM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며, 연금ALM체계구축에 의한 효율적인 자산배분과 재정계획수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연금전문인력의 확충

- 자산운용능력의 가장 기본적 토대가 되는 연금전문인력의 확보는 보험회사의 인력인프라 구성에 있어 중요한 시점이며, 특히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는 연금상품에 특화된 계리사 중심의 전문인력 확충으로 연금상품개발 및 ALM적 자산운용에 전문적 능력 배양이 필요함.